

포장 물류비 2003년 2012억원

교통연구원, 국가물류비 90조3000억원 ... 물류 부가가치 55조원

2003년 운송·보관·하역·포장·정보 등 물류활동에 소요된 국가물류비가 90조3450억원으로 GDP의 12.5%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물류활동으로 인한 국가차원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55조6330억원으로 총물류비의 59.8%를 차지했다.

한국교통연구원이 11월10일 발표한 <2003년 국가물류비 산정결과>에 따르면, 2003년 국가물류비는 2002년보다 3.8% 증가한 90조3450억원, 국제물류를 포함하면 112조1600억원(GDP대비 15.5%)으로 집계됐다.

하지만,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물류비의 비중은 GDP 상승폭(5.9%)이 높아 오히려 0.2%p 낮아졌다.

물류비 중에서는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수송비가 9.7% 증가한 69조4700억원(전체의 76.9%)으로 가장 많았고 재고유지 관리비 15조2910억원(16.9%), 포장비 2012억원(2.2%), 하역비 1257억원(1.4%), 물류정보비 1139억원, 일반관리비 1176억원(1.3%)으로 집계됐다.

국제물류활동으로 인한 국가물류비의 비중은 2000년 18.1%에서 2003년 19.5%로 상승했는데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물류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

물류활동의 총 부가가치는 2002년보다 6.1% 늘어난 55조6330억원으로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7.2%에서 7.7%로 0.5%p 높아졌다.

국제물류활동을 포함한 물류활동 부가가치는 58조9990억원(GDP 대비 8.1%)이다.

물류산업 효율화를 보여주는 단위물류비(톤당 처리비용)는 수송비가 3만7845원으로 전년대비 3.4% 줄었고, 재고유지관리비도 1만609원에 불과해 총 5만1845원으로 7.7% 감소했다.

1톤의 화물을 1km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수송비용을 뜻하는 단위수송비는 479.1원으로 2.6% 감소했다.

한국교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“물류비에서 수송비를 낮추기 위한 연계수송기능의 강화 등 수송효율성을 높이고 제3자 일괄아웃소싱 전환을 위한 정부, 화주, 물류기업의 구조개선 노력이 시급하다”고 지적했다.

<화학저널 2005/11/11>